

# kiri Weekly

2016.2.15. 제371호

## 이슈

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: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

## 포커스

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의미와 시사점

## 글로벌 이슈

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보험산업에 주는 의미

미국 · 영국 퇴직연금 이전거래 증가

중국 건강보험시장의 최근 동향과 전망

## 금융시장 주요지표

**kiri** 보험연구원  
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

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,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  
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(여의도동 35-4) 8층 보험연구원 (문의: 변철성 수석담당역 / 02-3775-9115)



#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 :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

김석영 연구위원, 김세중 연구위원

## 요약

-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“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”을 발표함.
  - 보험산업 성장 초기에는 가격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하였으나, 점차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가격규제는 오히려 보험회사의 혁신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함.
- 금융개혁 이후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.
  - 생명보험회사들은 온라인 채널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저해약환급금 적용, 최저해지환급금 폐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음.
  - 보험회사들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나 시장경쟁으로 인하여 인상률이 회사별로 차별화됨.
  - 또한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기 시작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보장되지 못하던 위험들이 보장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.
- 금융개혁 초창기에 나타나는 보험료 변동은 금융개혁 목표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되며, 금융당국은 제도적 안전장치로 소비자 편익 훼손 우려를 차단할 것임.
  - 금번 금융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규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고와도 같은 것임.
  - 보험회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 및 덤핑으로 인한 미래 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같이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는 것은 공정거래 및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로 차단되고 있음.
-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금융개혁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, 보험회사는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.

## 1. 검토배경



- 우리나라 보험산업 성장 초기에는 가격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하였으나, 보험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가격규제는 오히려 보험회사의 혁신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함.
  - 금융규제 개혁의 목적은 가격, 영업행위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균형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성장·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.
    - 보험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가격규제는 완화되고 영업행위 및 재무건전성 규제는 강화될 필요가 있음.
  - 보험산업 초창기에는 경험 및 역량 부족과 영업행위 및 재무건전성 규제체계 미흡으로 가격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적정가격과 재무건전성까지 확보함.
  - 보험산업 성숙기에는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로 인해 시장 효율성과 혁신이 저해되고, 강화된 영업행위 및 재무건전성 규제와도 균형이 훼손되어 규제 부담만 가중됨.
  
- 이에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“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”을 발표함.
  - 로드맵은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보험산업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상품·가격 출현을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.
  -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존재하여 온 명시적·비명시적 가격규제가 사라지고 보험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됨.
  - 소비자 보호는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작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적절한 보험료를 받는 것이므로 가격규제 자율화는 소비자 보호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음.
  
- 본고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를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.

## 2. 상품 및 가격규제 폐지의 영향



### 가. 금융개혁 이전의 상황

-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보험요율을 통제함으로써 보험상품의 가격 및 형태를 규제하여 왔음.
  - 예정이율, 예정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그림자 규제를, 예정위험률에 대해서는 안전할증 한도규정을 통해 보험료를 통제하였음.
  - 이에 따라 일부 건강보험상품의 경우 위험률차손실이 발생하여도 충분한 안전할증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험회사들은 갱신형 상품 위주로 판매함.
  - 해약환급금, 부담보기간 등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이 존재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.
  
- 이와 같은 보험상품 규제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각 회사만의 강점을 살린 전문 보험회사로 성장하지 못하고 비슷한 사업모형을 가진 백화점식 보험회사로 성장해 왔음.
  - 보험회사들은 가격 규제로 개별 상품 종목에서 일정 수준의 이익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특정 종목에 전문화하기보다는 모든 종목을 취급하는 전략을 추구함.
    - 종신보험의 이익으로 건강보험 상품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함.
  - 자산규모에서 수십 배 차이가 나는 회사들이 연금저축, 어린이보험, 건강보험, 변액, 종신상품 등 동일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.
  
- 보험상품 측면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 일부 건강보험은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인상하지 못하여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, 이에 손실보전을 위해 종신보험의 이익을 축소하지 못함.
  - 실손의료보험은 값비싼 도수 치료와 비급여비 확대 등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2011년 이후 손해율이 120% 이상을 기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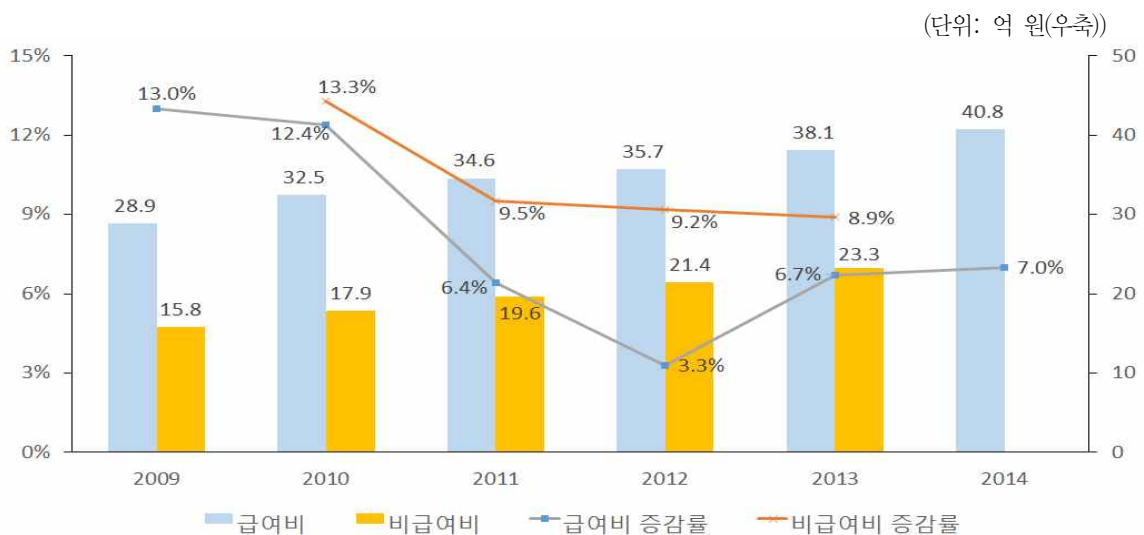
〈표 1〉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

구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손해율	121.6%	126.3%	130.6%	137.6%
(보험금)	25,053억 원	29,938억 원	34,997억 원	41,149억 원

주: 손해보험 8개사 실적을 취합하여 작성함.

-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대상인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비가 급여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이후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다가, 2015년에야 비로소 인상함.
  - 2015년 주요 회사별로 보험료를 12~21% 인상하였으나 이는 급여비 누적증가율(2009~2014년) 41.1%, 비급여비 누적증가율(2009~2013년) 47.5%에 크게 미치지 못함.
  - 2015년까지 보험회사들은 금융당국의 가격규제와 보험회사 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적정보험료 수준으로 인상하지 못함.
- 보험회사들은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보험 등의 특약으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 통합보험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판매증지 혹은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았음.
- 종신보험 이익으로 건강보험 손실을 보전하여야 했기 때문에 참조위험률 개정 시에만 종신보험 위험률을 하향조정하였음.

〈그림 1〉 급여비 및 비급여비 증감률 추이



주: %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.  
 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(2014), 『건강보험통계연보』.

- 지속적인 손실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공급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.
- 2000년 중반 보험회사들은 가격규제로 암보험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자 암보험 판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였음.

## 나. 금융개혁 이후의 변화

- 보험회사는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료를 합리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부 상품들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경쟁이 본격화됨.
  -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이러한 가격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슈퍼마켓 ‘보험다모아’를 출범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함.
  - 보험다모아 등을 활용한 보험료 비교기능 제고로 보험회사들은 일부 상품의 경우 가격인하를 통해서 시장경쟁을 하기 시작하였으며, 이러한 가격경쟁은 전 보험종목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
  - 보험다모아를 통해서 가격비교가 수월해진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가격이 15.4~17.6% 인하된 상품들이 출시되었으며, 이에 다른 회사들도 가격이 인하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에 있어 가격자유화가 추구하는 가격경쟁이 본격화됨.
- 생명보험회사들은 온라인 채널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저해약환급금 적용, 최저해지환급금 폐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음.
  -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가격을 인하한 온라인 단독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하였음.

〈표 2〉 A 생보사 단독실손의료보험 금융개혁 전후 가격

(단위: 원)

구분	남자			여자		
	이전	이후	이후/이전	이전	이후	이후/이전
단독실손의료보험	12,470	10,300	82.6%	16,040	13,240	82.5%

주: 40세, 표준형, 전체담보, 비위험.

- 일부 보험회사들은 무(저)해약환급금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로 종신보험의 중요성과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다 저렴한 종신보험을 제공함.

〈표 3〉 B 생보사 상품 가격 비교(종신보험, 40세, 납기 20년, 가입금액 1억)

(단위: 원)

구분	남자			여자		
	기존상품	저해약환급금상품	비율	기존상품	저해약환급금상품	비율
종신보험	224,000	194,000	86.6%	186,000	161,000	86.6%

- 또한 해지환급금 산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최저해지환급금 폐지상품을 개발하여 종신보험 가격인하를 유도함.

〈표 4〉 C 생보사 해지환급금 보증/미보증 상품 보험료 비교

(단위: 원)

구분	남자			여자		
	보증	미보증	미보증/보증	보증	미보증	미보증/보증
UL종신	246,000	209,000	85.0%	209,000	174,000	83.3%
CI종신	328,000	288,000	87.8%	279,000	240,000	86.0%

주: 1) 가입금액 1억, 40세, 20년납.

2) UL종신은 통합유니버설/유니버설프라임종신보험 기준임.

- 보험회사들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, 인상률은 시장경쟁으로 인하여 회사별로 차별화되고 있음.

- 실손의료보험 인상폭은 최대 30%<sup>1)</sup>까지 설정되어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자사 손해율과 시장경쟁을 고려해서 18~27% 인상함.
  - 2015년 보험료 인상 때 충분히 인상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지속되었고, 이에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.
- 실손의료보험 가격인상은 지금까지 통제되어 온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며, 이 과정에서 회사들은 가격차별화를 통해 경쟁함으로써 시장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.

1)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개혁조치에서도 점진적으로 위험률을 조정하기로 함.

- 규제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던 위험률을 인상하는 정상화 과정과 더불어 역으로 높게 유지되던 위험률을 낮게 조정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.
- 금융개혁조치로 보험상품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어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보장되지 못하던 위험들이 보장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됨.
  - 척약, 약침, 추나요법 등 한의학 치료비를 정액 보장하는 한방보험이 개발되었으며, 결혼식 취소, 의상·예물 손상, 신혼여행 취소로 인한 각종 위약금 등 결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웨딩보험도 출시됨.
  - 또한 노인이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상품도 개발이 활성화됨.
  - 가격규제로 개발하지 못하던 위험도가 높은 상품들도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신상품이 소개될 것으로 전망됨.

〈표 5〉 금융개혁 이후 신상품 개발 및 가격 변화

구분		상품종류	비고
신상품 개발		한방보험, 웨딩보험, 유병자보험 등	규제 완화
가격	인상	의료실손보험	가격자유화에 따른 누적손실 현실화
	인하	종신보험, 자동차보험	상품 규제 완화 및 시장경쟁 본격화

### 3. 금융개혁의 의미



-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임.
  - 사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함.
  - 시장경쟁을 통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 약속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함.

-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공급받고 해당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받음으로써,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.
- 금융개혁 초창기에 나타나는 보험료 변동은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되며, 전문화된 상품과 적정 가격을 통한 보험회사의 질적 경쟁은 양적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.
  -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상은 규제로 통제되어 온 보험료가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도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.
  -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는 시장경쟁이 본격화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에게 상품이 공급될 것이 기대됨.
  - 보험종목별로 이익 실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회사의 강점을 살려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전문회사가 출현하여 보다 전문화된 상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이러한 질적 경쟁의 확대는 매출위주의 양적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의 축소를 나타낼 것임.
- 금번 금융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규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고와도 같은 것임.
  - 기존의 가격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서 재무건전성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로 규제의 틀이 전환됨.
  - 일부 상품에서 나타난 가격의 큰 변동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임.
- 보험회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 및 덤핑으로 인한 미래 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같이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는 것은 공정거래 및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로 차단되고 있음.
  -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이후 보험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가격담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.
  -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에 의해서 보험회사들은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요구받고 있어 가격덤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기 어려움.
-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금융개혁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, 보험회사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.

- 금융개혁으로 소비자 보호의 방법이 금융당국의 가격규제에서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한 가격결정으로 변경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방법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짐.
- 보험회사들은 규제의 온실 안에서 양적 성장 중심으로 경쟁하다가 이제는 비바람이 치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는 역량이 요구되어짐. **kiri**